

현행 도서정가제 3년간 유지

최대 15% 할인률 적용
출판·서점업계 합의
문체부 "상황 보기로"

최대 15% 할인률이 적용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앞으로 3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회, 인터넷서점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2014년 11월부터 '10% 할인과 5%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이 같은 제도가 다시 3년간 유지되는 것이다.

그간 출판계는 아예 할인을 금지하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단체 등이 이를 반대해왔다.

양측은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했고,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이 사정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정관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북스토리 대표)은 "지금 다시 바뀌면 독자들이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혼란스러워 할 것 같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도서정가제가 본질적으로 독자를 위하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출판계 전체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된 여러 업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점 측과 합의하는 과정이 길어 시간이 걸렸다"며 "기존대로 3년 한시적으로 현행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2년 동안 책 평균 가격이 5.7% 하락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효과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 가격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에서 신간 도서의 비중은 증가하고, 지역 서점들 창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부분도 도서정가제 시행의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무더위엔 시원한 맥주”

전주 가맥축제 성료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주 특유 문화인 가맥을 주제로 한 '전주 가맥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가맥은 '가게에서 마시는 맥주'의 준말로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이 1970년대부터 맥주를 쓴 가격에 구멍가게 앞에서 즐기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관광객이 관광코스로 가맥집을 찾을 만큼 유명한 전주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가맥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경제통상진흥원, 하이트진로 등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를 이남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가맥축제는 개최 선언과 함께 가맥 콘서트, 가맥 어울마당, 타투 그리기, 사랑의 병뚜껑 모으기, 빙산 포토월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난해까지는 전문문화의 전당에서 치러



졌지만 관광객과 주민 접근성,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가맥축제 참여업체는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어 다채로운 안주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익산보석박물관·서울주얼리지원센터 상호 협력 '맞손'

익산보석박물관은 서울주얼리지원센터(재단법인 서울주얼리진흥재단)와 8월 10일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주얼리 라이브러리에서 국내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조성을 위한 상호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보석박물관은 종로 주얼리거리 축제 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석도시, 익산 홍보관을 운영하고, 박물관 소장품 이동전시 개최 등의 제반적인 상호발전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한다.

익산보석박물관은 선진 경영시스템 공유와 협력뿐 아니라 상호 홍보영상 및 홍보물 교환, 소장품 이동전시 등을 추진하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석도시, 익산'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석의 도시 익산과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석박물관의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주얼리지원센터는 서울시의 위수탁을 받은 (재)서울주얼리진흥재단이 운영하며 주얼리산업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국산 주얼리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해 비즈니스로 연계하고 있다. 주얼리 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도상형 제조업으로 재탄생시키고 더불어 종로일대를 서울경제에 기여하는 창조적 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제1관, 올해 제2관을 각각 개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문화예술인에게 무료로 대관합니다'

정읍시, 운영 중인 '연지아트홀'
내달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희망자 신청접수는 16일까지

정읍시가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연지아트홀을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 대관한다.

시는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연지아트홀 개관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특별 무료 대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관 신청 대상은 정읍 지역 내 지역문화예술단체이다. 정읍예총이나 정읍문화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단체나 비영리 지역문화예술단체 소속된 팀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희망자는 연지아트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마감은 오는 16일까지이고,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관할 수 있다. 단,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무대와 시설물 안전점검일인 매주 월요일은 이용할 수 없다.



연지아트홀 내부 모습.

시에 따르면 사용 허가는 신청 순에 따라 접수 당일 공연 일정을 배정한다. 수익성 사업이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정치·종교성 행사 등으로는 대관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문화예술과(연지아트홀, ☎539-7871~7873)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연지아트홀은 옛 군청 부지 6248㎡에 연면적 2,01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무대 면적 270㎡, 객석 203석인 소규모 공연장으로 클래식과 연극, 합창,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방학 중 휴관없는 박물관' 27일까지 운영

전주역사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휴관없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방문이 가능해 일주일 내내 어느 요일이든지 박물관에 오면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상설체험프로그램의 체험비가 할인된다. 프로그램으로는 전주정신 꽃심 및 닭띠배지 만들기, 효 문자도 타본, 완관본 춘향전 목판 인쇄 등이 준비돼 있다. 전주 8경 스탬프 찍기와 닭띠해 스탬프 찍기 등은 무료이다. 아울러 매주 주말 오후 2시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상영한다. 4~5일에는 '모아나', 12~13일에는 '덱보', 19~20일에는 '짱', 26~27일에는 '포카혼타스'가 준비돼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전주 정신 특별전 '꽃심의 도시, 전주'를 관람할 수 있다. 전주정신 '꽃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시로 전년도시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과 이를 만든 전주정신을 만나 볼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휴관을 모르고 박물관을 찾아 왔다가 돌아가는 관람객들이 종종 있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무더운 여름을 박물관에서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